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성탄절 메시지



Merry Christmas

주님 계신 곳이라면

비천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세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비천함에 참여하시기 위함입니다.

더러운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은 천박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케 하시고 앓은뱅이를 일으키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 되심을 계시하신 것이며 비유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교훈하신 것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말구유 위에 나신 아기 예수는 십자가 없이는 해석이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시어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에 우리를 찾아 높은 곳이 아닌 비천한 자리에 오시고 대접과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를 택하여 오신 주님을 크게 영접하지 못한 불신을 통회하면서 주님 계신 그 곳이 그 어디라 해도 찾아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로목사 이종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축하찬양 : 오늘 찬양예배 시, 유·초등부, 사랑부 / 분당 성탄절 축하예배 : 25일(월) 오전 11시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다.

오늘 찬양예배시간에는 성탄주일로 찬양예배 시간에 유·초등부와 사랑부의 성탄축하찬양을 가지며 예배 후 당회원 장로들의 산타 선물 증정 순서가 진행된다.

25일(월) 성탄절 당일에는 성탄절 축하예배는 오전

11시에 한번 드리며 성탄감사헌금을 드린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복되고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항존직 은퇴식 / 특별제직회 / 송구영신(送舊迎新)예배

항존직 은퇴식·특별제직회 : 12월 31일(주) 찬양예배 시 송구영신예배 : 2018년 1월 1일 0시 분당

주님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이 12월 31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또한 찬양예배후 예·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리며 다음 주일 1월 7일(주)은 공동의회로 모인다. 교회는 26년 간 매 년 마지막 주 찬양예배 후 특별제직회를 통해 교회의 일년 결산과 예산을 공개하여 왔다. 교회의 일년 예결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니 제직들은

모두 참석 바란다.

2018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월 1일 0시 분당에서 시작된다. 11시 30분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동이 되었다가 0시 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 서 이종운 원로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 30분 소동이 되기 전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리브가 전도회 김형상/최금숙 박광식/박현영 김선희1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새가족위원회 총회

오늘 주일 1부 예배 후 602호

새가족위원회(위원장 : 이강진 장로)는 총회를 오늘 1부 예배 후 602호에서 갖는다. 해당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12월 세례식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17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2017년 올해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 : 최윤경 감정현 김태수 계 3명
 - 입교 : 김은빈 김재령 정서현 최세용 육유진 계 5명
 - 유아세례 : 김하준 이서은 최아준 이나린 계 4명
- 총 1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7가합81318 판결요청금지 가처분
제 권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원고) / 송구영신(송환) 로고스
대 표 자	박노철 송구영신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대 당 변 호 사	정현수 송구영신 법무법인 한샘
대 당 변 호 사 이 상 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 부 자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표자 송희강 피기학 송구영신 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사 정현명, 한양직 송구영신 변호사 강문태, 정지권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본인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7. 9. 11.자 예중재판과 사건 제101-53호에 관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 산하 서울장남노회(이하 '서울장남노회'라 한다) 소속 지교회이다.
나. 채권자의 대표자인 박노철은 2017. 4. 4. 서울장남노회에 당회 결의 없이 장로 15명을 증원하겠다는 청원을 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서울장남노회 제60회 정기회에서 위 청원을 허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증원원 허락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박노철은 2017. 4. 10.경 서울장남노회에게 채권자의 당회가 박노철을 반대하는 장로들의 비합조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헌법 제9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장로 피택 선거와 기타 안건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서울장남노회장은 2017. 4. 14. 장로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지시'라 한다)하였다.
라. 채권자는 2017. 4. 30. 공동의회를 개최하였고, 위 공동의회에서 장로 15명을 선

박노철 목사측이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무효 총회판결에 불복하고 신청한 『총회 판결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

박노철 목사측에서 지난 4월 불법적으로 강행한 15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총회는 지난 9월 11일 무효임을 판결하였다. (순례자 1337호 참조) 그러나 박노철 목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였다.

이에 지난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사부는 『총회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하였다.

각하의 이유로는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라고 밝혔다.

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채권자 소속 교인인 노문환 외 20인은 서울장남노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장로증원 허락 결의 및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지시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예중재판국 사건 제101-53호)를 제기하였고, 채무자 총회 재판국은 2017. 9. 11. 이 사건 증원원 허락 결의 및 이 사건 공동의회 소집 지시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교회의 분쟁 시에는 장로 증원 정원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에 근거한 이 사건 판결은 무효이다. 이에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지교회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채권자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철회되는 채권자의 이익은 공동의회

에서 자율적으로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이익으로 보는데, 이는 채권자의 종교적 자율권과 관계된 사항인 뿐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이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1.

재판장 판사 피해법
판사 피해법
판사 피해법



아기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해요



이계종 장로
(교육위원장)

아기 예수님 오신 이 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오신 주님! 죄와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용서와 화목으로 오시옵소서. 슬픔과 좌절뿐인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으로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요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높히 계신 분께서 자신을 비워 낮고 낮은 말구유에 임하셨으니 경배를 드리나이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성도들이 하늘 높이 찬양을 드리나이다. 희망차고 꿈이 가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성탄 축하 뮤지컬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니, 성도님들은 모두 오셔서 예수님 생신을 축하해주시시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마를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믿음의 눈으로 풀어보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나누어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을 아끼시겠습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널리 전하십시오!



“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
 메리 크리스마스 ~ .

서울교회, 선교부,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방글라데시에서 소망의 아이들이 성탄편지를 올립니다.
 광으로 교회도 선교지도 교회도 어려웠던 2017년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받습니다.
 아마도 성탄절이 현재의 아기의 마음에 있는 것은 빛과 온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심으로 환희는 감사로 경이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이들과 같이 뛰는 시간을 보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서울교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기회가 없어 어쩌면 학교도 다닐수 없고, 길거리 아이들로 살았을 많은 우리아이들이, 예수님 찬양을 부르고 경이기도 들어가고 이제는 꿈과 소망의 아이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신 주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어려움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와 헌신으로 주유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방글라데시에서 그 분께 선교사와 소망의 아이들이 올립니다.
 শুভ খ্রিস্টমি শুভ বর্ডেন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감사한 분들에게 성탄카드를 쓰다가 저도 감사함으로 교회에 카드를 씁니다. 멋진 카드는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교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조OO 선교사 드림



왼쪽의 어렸던 소년이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I'm Robul.... Dear, Seoul churches team...
 I learned many thing div to about 11 years of my hostel life. Con-structures most important lessons, " To help the God by helping humanbeing". And I learned it from the churches of Seoul and others. We are very suggest by the help of churches Seoul. I hope that we will go ahead by the mercy of Almighty and your help with our clairvaident. When I pray to the Almighty I says that, "Oh my unending grateful loved, please mercy them who give us only one tk for help please mercy them thousand tk(thank)
 Please, pray for me. My HSC examination is near hand. My mom is very peaky, pray for here quick heal.

God bless all of you... Bless to the Seoul churches.
 Wishes to all of you merry christmas...
 ...Robul...



Love u all....



방글라데시에서 서울교회 성도들과 방글라데시 도교 기도팀에 성탄카드를 보내왔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뜨거운 햇볕과 먼지, 긴 여행길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가카스로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베들레헴 시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옷을 걸치고 식사는 배불리했으며 얼굴에는 웃음을 띠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며 어디론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머물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낳을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편안한 잠자리와 즐거움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몸 풀 공간은 어둡고 냄새나며 불결한 마구간, 그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바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호적 정리하러 그 곳을 찾은 이들에게는 이날은 잃어버린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축하의 인사를 하러 온 사람은 너무도 뜻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던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그 중에 서울, 또 그중에 강남구에 위치한 우리들. 물건이 넘쳐나는 백화점과 많은 상점들 그리고 거리와 호텔 앞에 성탄절을 축하하는 대형 트리들과 온갖 화려한 전구로 반짝이는 장식물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즐거워하는 계절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웃고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그 안에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이 계시까요?

첫번째 성탄절, 베들레헴 시내를 가득채웠던 사람들, 여관에 머물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첫번째 잃어버린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다면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우리들은 아기 낳을 장소를 찾아 지친 몸을 이끌고 헤매이던 마리아와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있나요? 빈 구유만 바라보는 잃어버린 성탄절이 될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유은경 집사(편집부)

2018 섬김위원 추가명단

* 교구위원회

- 다락방장 : 5-4 이영희 5
- 부다락방장 : 3-2 이희숙
- 부다락방장 : 8-2 손영희
- 부다락방장 : 8-4 이경옥 2

* 교육위원회

- 유치부 부감 : 김영현
- 유년부 교사 : 이건희
- 초등부 교사 : 김민정 1 김범수
- 소망부 부감 : 이용자 1

* 선교위원회

- 인도기도 팀장 : 김미성 1

*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찬양대 반주자 : 박승기
- 임마누엘 찬양대 : 김은영 윤분남 김혜영 김희진 김선영 이종원 안홍희 박인화 윤동선 전화진
- 그레이스핸드벨 : 최규민 김경숙
- 예비 오르가니스트 : 최수황 이경옥2
- 새벽기도회 반주 : 김복희

- 서리집사 : 20211 양도현 24149 박준석1 14660 조해영 11587 신모란

기록물 제출공고

당회 이하 모든 기관 - 멀티미디어부(703호)로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는다.

당회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7년 한 해 동안 기록한 모든 기록물 (예.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사진 등)을 작성했던 컴퓨터파일과 같이 2018년 1월말까지 멀티미디어부실(703호)로 제출해 주기 바라며 또한, 2017년 이

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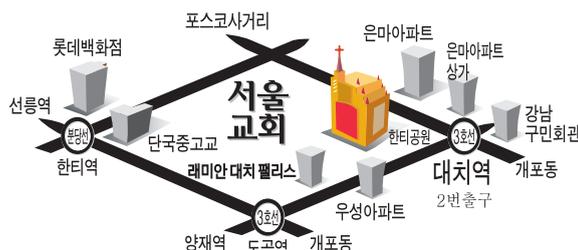
컴퓨터파일인 경우엔 파일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라며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요일예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26일(화) 한국기독교교선교신학회 신학연구위원회 총회를 소집한다. 12월28일(목) 자유민주국민연합원로회 송년 모임에 참석한다.

■ 득남: 15교구 임태성 성도 전주진 성도 12월 15일 (전광영 집사 김인숙2 권사 장녀 가정)

■ 금주의 식사: 유형석 집사 제오복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성탄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2. 2017년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8년 새해를 소망 중에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3.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